

태풍에 여의도 5배 농작물 침수·낙과...하반기 밥상물가 비상

**전월比 배추 160%·양배추 107%·무 127% ↑
벼·사과 등 피해집중...가을 수확기 물가 비상
다가오는 추석·기름값 및 곡물가 상승도 변수**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휩쓸고 가면서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농작물 침수와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밥상물가가 또 한번 출렁이는데, 다가오는 추석과 국제유가 상승, 곡물가 인상도 2% 초반대로 둔화한 물가를 뒤흔들 전망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 기준 농작물 재배지 1565.4ha가 카눈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침수와 조풍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952.8

ha로 집계됐다. 조풍 피해는 소금기가 있는 강한 해풍에 의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농작물 피해 중 3분의 1인 557.4ha가 벼에 집중됐다. 그다음 당근(95.0ha), 콩(86.7ha), 고추(60.4ha) 등에 피해가 컸다.

돌풍에 의한 낙과 피해는 대부분 사과(524.9ha) 과수원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52.8ha로 가장 큰 피해를 봤고, 그 뒤로 경남(352.6ha), 전남(219.1ha), 제주(158.0ha), 대구(146.0ha) 등 순이었다.

다. 집계가 이어지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주요 채소와 과일 가격은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1일 기준 주요 과일과 채소의 도매가격이 전달보다 많으면 160% 넘게 훌쩍 뛰었다.

상(上)품 배추 10kg은 전달보다 160.7% 오른 2만5760원으로 집계됐다.

상품 양배추 8kg은 전달보다 106.9% 올라 1만4560원, 상품 깻잎 2kg은 전달보다 78.2% 오른 3만8760원이었다.

상품 시금치 4kg은 51.7% 오른 5만9500원, 상품 적상추 4kg은 17.8% 오른 5만9200원으로 나타났다. 상품 무 20kg은 한 달 전보다 127.3% 올라 2만9320원, 당근 20kg은 26.7% 증가한 6만640원이었다.

꽃고추도 상품 10kg이 51.9% 올라 8만

2980원으로 나타났다.

상품 사과(후지) 10kg이 8만6225원으로 전달보다 15.2%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태풍 전부터 폭염과 폭우 등 올해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가을 과일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피해가 총집계되고, 초가을부터 늦가을 수확 기간이 다가오면 과일값은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 상품성 하락도 우려된다.

게다가 올해는 9월 말 이른 추석을 앞두고 있어 단기 수요가 급증하면 서민 체감 물가는 더욱 오를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25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이달 물가는 2%대 초반의 안정된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물가 둔화는 석유류 가격이 역대급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는데, 최근 국제 유가

는 공급 감소 우려와 수요 증가로 오히려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유가도 5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해 이달 물가 상승을 견인할 전망이다.

거기다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이 종료되면서 국제곡물가도 3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해 하반기 국내 가공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9월 날씨에 따른 계절적 요인과 추석 등 수요 급증으로 일시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경제 동향에서 "폭염·호우 등에 따른 물가 불안 및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대내외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변용일 기자

“관리하는 남성 위해”...오브제, 선키어 출시



어덱트의 남성 그루밍 브랜드 오브제가 '오일 컨트롤 선택스틱'과 '데일리 수분 선키림' 2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선키어 제품군을 확장했다.

그루밍은 목치장·웃차림 또는 손질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외모에 관심이 많아 자신을 가꾸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남성들을 '그루밍족'이라고 부른다.

12일 D2C(직접판매) 기업 어덱트에 따르면 오브제 오일 컨트롤 선택스틱은 자외선 차단 지수 'SPF50+/PA++++'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력과 끈적임 없이 보송한 마무리감을 선사하는 선택스틱이다. 피부 임상을 통해 사용감을 검증받은 제품이다.

이 제품은 실리카 파우더 함유로 즉각적인 피부 번들거림 완화에 도움을 준다. 가볍게 피팅되는 사용감이 모공까지 커버를 도와주고 피부에 잘 밀착되는 점이 특징이다. 스티킹태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오브제 데일리 수분 선키림은 수분에센스가 68% 함유되어 자극 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 산뜻하고 촉촉한 선키림이다. 자외선 차단 지수 SPF50+/PA++++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은 물론 블루라이트까지 이중으로 막아준다. 피부에 즉각적인 콜리효과를 부여하며 임상을 통해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진정 개선 효과를 검증받았다.

오브제 선키어 2종은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해양 생태계 보호까지 고려했다. 표면이 하얗게 바뀌는 백화현상으로부터 바닷속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해 옥시벤존과 옥시노테이트를 첨가하지 않았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자극도 최소화 했다.

오브제 오일 컨트롤 선택스틱과 오브제 데일리 수분 선키림은 오브제 공식 홈페이지와 쿠팡에서 만나볼 수 있다.

뉴스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견본주택 개관

**오는 21일 특별공급 시작, 22일 1순위 청약, 당첨자 29일 발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수 및 당첨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
전용 84㎡ 단일 구성, 다채로운 커뮤니티... 총 1,520세대 대단지**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1일 광주연구개발 특구 첨단3지구 A1BL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 눈길을 끈다.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은 첨단3지구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 지하 1층~지상 20층, 20개 동,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된 총 1,520세대의 대단지이다. 면적별로는 ▲84㎡A 1,290세대 ▲84㎡B 230세대다.

청약일정으로는 오는 21일(월)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22일(화) 1순위, 23일(수)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29일(화)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고, 9월 12일(화)부터 9월 15일(금)까지 4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여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거주지역 제한도 없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 **첨단3지구 중심 입지 갖춰... 직주근접 및 생활인프라 우수**

광주 첨단3 지구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립심뇌혈관센터 등이 들어서고, 주거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주거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자족도시다.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은 첨단3지구 내에서도 중심상업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등 중심 입지를 갖춰 직주근접은 물론 우수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단지 옆을 지나는 진원천변을 따라 다양한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생활 환경도 쾌적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리한 교통도 눈여겨볼 만한 요소다. 호남고속도로,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빛고을대로 등을 통해 우수한 도심접근성과 광역교통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첨단3지구부터 상무지구까지 약 4.9km를 연결하는 최대 6차로 도로(2026년 예정)와 첨단3지구-빛고을대

로 진입도로(2026년 계획)도 예정돼 있다.

◆ **힐스테이트만의 SVC 특화설계 적용... 다채로운 커뮤니티까지**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은 ‘힐스테이트’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SVC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SVC는 Stylish, Various, Comfortable의 약자로 세련되고 다채로우며 편안한 삶을 뜻한다.

우선 단지는 채광·일조·통풍·바람길 등을 고려해 남향 위주로 배치했고, 넓은 인동 거리를 확보했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전기차 주차구획 112대를 포함해 총 2,161대(세대당 약 1.4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옥외 전기차 주차구획 28대 외 모두 지하로 배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단지환경을 조성했다. 지상에는 대규모 어린이놀이터와 컬러풀플라자(주민운동시설), 어반라운지, 커뮤니티라운지 등 다양한 주민 휴게공간과 산책로를 조성했다.

세대에는 넉넉한 평면과 인테리어가 적용된다. 84㎡ 타입의 경우 4베이 판상형으로 맞통풍에 우수하며 84㎡B는 2면 개방형으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다. 드레스룸, 펜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과 공용홀에 설치되는 ‘공용창고’를 전 세대에 제공해 더욱 넓은 생활공간을 확보했다.

다채로운 고품격 커뮤니티도 들어선다. 1인 독서실, 독서실, 워크라운지, 스티디라운지, 북카페(작은도서관) 등 교육시설과 골든라운지,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등 케어센터도 조성된다. 프라이빗 샤워시설과 퍼팅그린이 갖춰진 골프연습장, GX룸, 피티룸, 필라테스, 피트니스가 가능한 운동시설도 들어선다. 이 외에도 다이닝라운지, 힐스라운지, H아이슬 등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설도 설계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은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자, 계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154 일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6년 10월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8월 들어 열흘 만에 30억弗 무역적자

수출 지속 감소...“연말까지 전망 어둡다”

최근 월 무역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불황형 흑자’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달 들어 열흘만에 30억1000만 달러(약 3조 9875억원)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플러스’ 전환 요인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반기 우리 수출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132억1800만 달러(17조4874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5.3% 감소했다. 수입은 162억3200만 달러(21조4912억원)로 같은 기간 30.5%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30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6-7월 월간 기준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달 들어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앞서 지난달 무역수지는 16억3000만 달러(2조823억원)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수출은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품목별로는 승용차(27.2%), 선박(182.8%)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감소했다. 반도체가 18.1% 감소했고 석유제품도 37.8%나 줄었다. 철강은 22.4%, 가전제품은 18.8% 감소 등이다.

국가별로는 중국(-25.9%)의 부진이 이어졌고, 미국도 0.8% 감소했다. 유럽연합(EU)은 22.7% 줄었고 일본도 10.4% 떨어졌다. 수입 역시 줄었다. 원유(-45.9%), 가스(-57.1%), 석탄(-46.4%) 등 에너지 부문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반도체제조장비, 정밀기기 등도 20% 대 하락했고 승용차가 41.8% 정도 하락하면서 모든 품목에

서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정부는 낙관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증가하는 상황이고 6월을 기준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저점을 지나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산업부는 여전히 오는 4분기(10-12월) 월별 기준 ‘수출 플러스’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르다.

최근 무역실적에서 보였던 흑자는 성장 형태의 흑자가 아닌 수출 감소에 더 큰 폭의 수입 감소가 가져온 흑자라는 점에서 ‘불황형 흑자’라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문제는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세계 경제는 회복세로 접어들어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수출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수출경쟁력이 중국 등에 비해 많이 약화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수출 부진을 전환할 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연내 수출 플러스 전환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목소리를 모았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자동차 등은 연초부터 잘 나갔던 것으로, 나머지 품목은 그다지 아직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중국 수출은 (앞으로도)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대체 시장 확보가 바로 가능한지 않다”며 “연말까지는 그대로 수출 전망이 어둡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선욱 기자

롯데마트 “위스키·와인 등 주류 추석선물세트 사전 예약”

작년 추석보다 상품군 확대...80여 품목

롯데마트는 주류 선물세트 80여 품목을 사전예약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사는 다음달 18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추석보다 20여 품목을 늘려 진행하는 행사로, 주중 취향이 다양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

우선 위스키 상품을 약 40%로 구성했다. 특히 프리미엄 위스키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추석 세트를 준비했다. 대표 상품으로 ▲주요 상품으로 ▲고든맥펠 위스키 9개 품목 ▲글렌파클라 25년 코리야 에디션 ▲조니워커 블루 라벨 등이 있다.

최고가는 영국 찰스 3세 대관식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고든맥펠 위스키 에디션 글렌그란트 1948’으로 5900만원에 한정 판매한다.

와인 상품은 롯데마트·슈퍼에서 수요가 많은 세트 중심으로 기획했다. 가격 대 성능비가 뛰어난 두 병 묶음을 지난 설보다 20% 늘렸다.

주요 상품은 ▲아르헨티나 트리벤도 리저브 2종 세트 ▲롯데 시그니처 와인 2종 세트 ▲보데가스 란 멘시온 2종 세트 ▲첼레 몬테스 세트 등이 있다.

전통주와 일본술 상품 세트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프리미엄 증류주 고운달 오크 선물세트 ▲40240 독도 블랙 에디션세트 ▲다카시미즈 준마이다이진조 등을 혜택가가 판다.

한편 보물병커에선 주류 선물세트를 차별화해 내놓는다. 일본 위스키 브랜드 아마자키



100주년 기념 ‘아마자키18년’을 599만원에 한정 판매한다.

이외 고품질 와인 ‘프리에트 로크 라두아 르 플라우드 루즈’와 ‘프리에트 로크 라두아 르 플라우드 블랑’ 등은 단독으로 판매한다.

오유나 기자